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 78–90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년 3월
Korean J Med Ethics 20(1) : 78-90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March 2017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투고일: 2017년 2월 19일, 심사일: 2017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10일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 『논어』를 중심으로*

손보미**

요약

생명 말기 환자의 의학적 의사 결정에 환자 가족이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전통문화인 유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은 유가 문헌인 『논어』의 "도(道)에 뜻을 두며, 덕(德)을 굳게 지키며, 인(仁)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닐어야 한다"에 주목하여, 덕과 인 함의를 고찰하였다. 위 문장에서 도는 인륜, 예가 예의[禮]에 해당한다고 보면, 덕과 인은 인륜과 예의를 매개하는 함의가 있고, 이러한 함의는 윤리적 결정을 도모하는 의학적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의 의료윤리원칙과 유학윤리가 상호 인정의 측면과 차이의 측면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자율성 존중, 선행 · 악행금지, 정의 원칙은 상호 인정의 측면이 있으나, 사람을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유학의 인간관은 의료윤리의 네 원칙이 상충할 경우, 선행 원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논증하였다. 그 다음, 『논어』에 보이는 덕과 인 용례를 고찰하여 그 의미의 갈래와 실천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논어』에서 덕과 인은 수신의 중요성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도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색인어

의학적 의사결정, 자율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유학윤리, 덕(德), 인(仁), 수신(修身)

교신저자: 손보미.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학. Tel: 031–703–8767. Fax: 031–703–8767. e–mail: sbm4010@hanmail.net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044).

**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학

I. 서론: 고찰의 필요성

본 논문은 생명말기에 처한 환자(이하 말기 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과 관련될 수 있는 유학(儒學/Confucianism)의 제 가치를 『논어(論語)』에 보이는 덕(德/virtue)[1] [1]과 인(仁/humaneness)[2] [2]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찰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말기 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전통문화인 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이를 유가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이해해 보려는 작업은 매우 부족하다. 둘째, 전통문화를 반영한 의학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합의하는 의사결정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3-5]과 공동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천적 덕의 토대로서 '중용'을 제안[6]하는 선행연구의 발전적 전개에 유학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유가 문헌인 『논어』의 한 구절인 "도(道)에 뜻을 두며, 덕을 굳게 지키며, 인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닐어야 한다"[3] [7-9]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 문장에서 도(道/the way)는 인륜과 일상생활에서 지향해야 할 바이고, 도의 지향과정에 덕을 굳게 지킴, 인에 의지함, 예에 노닒이 관련되었다. 도를 인륜에 뜻을 둔 지향과정으로 볼 경우, 덕-인-예는 인륜의 내용 및 형식에 해당하여, 행위주체의 도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함의는 의료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의사결정은 의학적 결정이자 동시에 윤리적 결정을 도모하므로, 의학적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현대의 의료윤리원칙과 유학윤리 체계를 상호 인정의 측면과 차이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II). 그 다음 『논어』의 도-덕-인-예에서 덕과 인 의미의 갈래 및 실천적 구조를 살펴보았다(III).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현상 이해와 『논어』의 도-덕-인-예에서 덕과 인 함의가 의학적 의사결정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IV).

II. 의료윤리원칙과 유학윤리

1. 상호 인정의 측면에서

비첨(Tom L. Beauchamp)과 칠드레스(James F. Childress) [10]가 제안한 의료윤리의 네 원칙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네 원칙은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 선행(beneficence)·악행금지(non-maleficence), 정의(justice)원칙이다. 이들 원칙을 유학윤리와 비교 고찰한 선행연구[11]는 전통 유가사회에서 의료윤리는 유학윤리에 근간을 두었으므로, 유학윤리는 의료윤리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료윤리의 네 원칙에 포함된 개념을 유학윤리에서 도출할 수 있으므로, 유학윤리와 현대의 의료윤

1) 덕을 virtue, inner power로 번역하고, 공자에서 덕은 도(道)에 따라 행동하거나 다른 것을 도로 이끄는 역량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사라 알란. 오만종 역.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 예문서원, 2001 : 156 [1]).

2) 인을 humanity, peace making으로 번역하는 입장이 있다(이동철, 최진석, 신정근 엮음. 21세기의 동양철학. 서울 : 을유문화사, 2005 : 199–206 [2]).

3)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28–129 [7]). 앞 문장을 James Legge는 "Let the will be set on the path of duty. Let every attainment in what is good be firmly grasped. Let perfect virtue be accorded with. Let relaxation and enjoyment be found in the polite arts."로 번역하였다(Legge J [Trans.]. The Chinese Classics – Volume1: Confucian Analects. Project Gutenberg. http://www.gutenberg.org/ebooks/3330 [9]).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논어 문장은 성백효 역주를 주로 하고, 이기동 역주. 논어강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8]를 참조하였다.

리원칙은 상호 인정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유학윤리는 선행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서구의 의료윤리원칙은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먼저, 유학윤리의 원리를 다섯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개인의 수신(修身/moral self-cultivation)이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의 기초이다. 둘째, 사람이 지향해야 할 바인 도는 도덕을 포함한다. 셋째, 인(仁/humaneness)-의(義/righteousness)-리(理/rules of propriety)가 윤리적 원리에 해당한다. 넷째, 사람은 끊임없이 수신하여 군자(君子/the superior man, gentle man)를 지향해야 한다. 이때 군자는 자율적 인간(an autonomous person)이며 동시에 관계적 인간(a relational person)이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유형을 부모와 자녀,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친구관계로 대별한다. 그리고 서구의 개념인 자율성 존중, 선행・악행금지, 정의에 상응하는 개념을 유학윤리에서 도출하였다.

1) 자율성 존중

군자가 덕을 보유하는 것에서 자율성 존중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군자가 덕을 보유하고 인을 실천하는 과정은 자유의지(free will)와 자기입법(self legislation)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 해당하는 수신은 자기반성에 전념하는 것으로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실천적 측면을 포함한다. 즉, 군자가 신(信)・공(恭)・경(敬) 등의 덕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서 자율성 존중 원리가 도출된다. 그러나 유학의 인간관에서 사람은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이므로, 군자의 자율적 선택은 관계내 존재로서의 역할에 부수되는 의무를 고려한 자율적 선택이라는 특징이 있다.[4)]

2) 선행・악행금지

인과 군자 개념에서 선행・악행금지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과 인간다움의 원리를 지향하며, 이러한 인은 혈연에 의한 가족관계내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확장되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군자 개념은 자기완성을 목표로 수신하는 자율성도 포함하지만, 군자의 자기완성은 모든 이에게 인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군자개념은 선행・악행금지 원리를 포섭한다.[5)]

3) 정의

유학의 의 개념에서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는 옳음(righteousness)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옳은 일과 옳게 행위 함을 의미하며, 도리와 상통한다. 둘째, 의가 적절함(appropriateness)으로 사용될 때는 상반되는 도덕적 가치사이의 중용(中庸/mean)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의의 맥락으로 사용될 때는 이기적 욕구를 규율하고 사적 이익을 제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학체계는 인의 근본이자, 도덕성의 근원을 효(孝/filial piety)와 제(弟/fraternal love)에서 찾고, 효와 제라는 가족윤리의 확장이 사회적 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을 감안하면, 효와 정의가 충돌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효와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경우, 행위주체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6)]

4) Tsai DFC. The bioethical principles and Confucius' moral philosophy. J Med Ethics 2005 ; 31 : 160 [11].
5) Tsai DFC. The bioethical principles and Confucius' moral philosophy. J Med Ethics 2005 ; 31 : 161 [11].
6) Tsai DFC. The bioethical principles and Confucius' moral philosophy. J Med Ethics 2005 ; 31 : 161–162 [11].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는 의료윤리원칙으로서 자율성 존중, 선행・악행금지, 정의 원칙은 유학윤리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고, 유학윤리에서는 덕, 인, 의, 군자 개념이 이들 원칙을 포괄한다고 논증하였다[11]. 덕, 인, 의 등은 군자의 역량일 것이므로, 결국 군자개념이 네 원칙을 포괄한다. 필자는 자율성 존중, 선행・악행금지, 정의가 의료윤리의 원칙으로 제시된 것과, 유학에서 윤리적 행위자로서 군자를 설정하고, 군자의 도덕적 원칙에 자율성 존중, 선행・악행금지, 정의원리를 수용한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도덕적 행위가 충족해야 할 원칙의 필수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학체계에서 군자는 자율적 행위자이지만, 군자의 자율적 행위는 관계내 존재로서의 역할에 따른 의무를 고려한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2. 차이의 측면에서: 인간관의 차이

또한 선행연구는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안한 의료윤리원칙은 원칙 간의 상충이 있을 경우,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유학윤리에서는 선행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인간관의 차이에서 찾았다[11].

의료윤리원칙 체계에서 인간은 합리성을 담지하고, 자유, 권리를 영위하는 개인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간관을 전제로 자율성 존중 원칙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토대로 성립한다. 반면 유학의 사유체계에서 사람은 혈연적 결속과 사회적 역할맥락 안의 존재이지, 자연적・사회적 관계를 벗어난 사람은 사유하지 않았다. 유학체계에서 인간(人)은 합리적 자율적 인간인 동시에 관계적 이타적 행위자이다. 첫째, 유가 문헌인 『논어』에 보이는 人[인]문자는 자기와 연관성이 없는 절대 타자나 인류보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을 함께 하는 주변사람이나 공동체에서 생활을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거나 특정한 행정구역을 통치하는 관리자와 연관되는 대상을 가리킨다[12].[7] 둘째,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는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인 이타적 사람으로, 도에 뜻을 두고 지향하는 군자에게 나와 타인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는 자율성 존중 원칙의 토대가 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개념을 재고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본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개념이 인간을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로서 고려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율성 존중 원칙도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서 고려하는지 분명하지 않다[13].[8] 그리고 인간의 결정은 자신이 처한 관계적 맥락과 무관할 수가 없다[14].

Ⅲ. 도–덕–인–예

1. 덕과 인 의미의 갈래

이제는 유학윤리 일반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 『논어』의 맥락에서 도-덕-인-예의 관련을 살

7) 신정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서울 : 심산출판사, 2006 : 93–94 [12].

8)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의 윤리원칙은 "respect for person", "beneficence", "justice"이다. 이 보고서에서 "informed consent"는 "respect for person" 원칙에서 유래한다. 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Research (1978) 참조(http://www.nibp.kr/xe/?module=file&a...b2a7258829). 그러나 비첨과 칠드레스가 1979년 발표한 의료윤리원칙은 "respect for autonomy", "beneficence", "non–maleficence", "justice"이며, 여기서 'informed consent'는 "respect for autonomy" 원칙과 관련된다. 필자는 후자의 'informed consent'에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고려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다. Tsai DFC. The confusician personhood and informed consent. 철학사상 2004 ; 18 : 81–82 [13].

펴보자. 유학에서 도는 일반적으로 길(way), 방법(method), 진리(truth) 등을 의미한다. 문자의 어원적 의미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 길을 지칭하였다[15]. 예는 육예(六藝)를 의미하는데, 군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여섯 가지 기예영역인 예(禮/예의), 악(樂/음악), 사(射/활쏘기), 어(御/말타기), 서(書/글쓰기), 수(數/셈법 익히기)이다. 도-덕-인-예에서 도를 인륜으로 그 의미를 좁혀 이해할 경우 예는 예의에 해당한다.[9] 이러한 의미연관에 따라 우리는 도-덕-인-예를 인륜-덕-인-예의가 관련되는 구조로 볼 수 있고, 이때 덕과 인이 인륜과 예의를 매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논어』에서 보이는 용례를 통하여 덕과 인 의미의 갈래를 가늠해보자.

1) 덕의 용례

(a)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처하는 곳을 생각하며"[10]: 군자는 고유한 선을 보존하고, 소인은 처하는 바의 편안함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b)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이 이 덕을 소유한 이가 적은지 오래이다."[11]: 여기서 군자가 보유하는 덕에 중용이 속함을 알 수 있다. 중용은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없는 평상을 의미한다.

(c)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12]

(d)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거니와, 훌륭한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있지는 못하다. 인자(仁者)는 반드시 용기가 있거니와, 용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인이 있지는 못하다."[13]

(e)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감히 덕을 높이며, 간특함을 닦으며, 의혹을 분별함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는 "좋다! 네 질문이여, 일을 먼저하고 소득을 뒤에 함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답하였다.[14]

(a)에서 덕은 군자가 보유한 내면적 역량으로 고유한 선이다. (b)에서 군자가 보유한 덕의 한 예로 중용을 소개하고 있다. (c)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 하듯이 한다면 진실로 덕을 좋아하는 것이나, 이러한 이가 드물다'는 것으로 덕을 보유한 이가 매우 적음을 나타낸다. (d)는 덕이 내면에 쌓이면 말로서 밖으로 나타나지만, 말을 잘하는 자는 입으로 말만 잘할 뿐임을 나타낸다. (e)의 경우, '일을 먼저하고 소득을 뒤에 함'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고, 그 효과를 계산하지 않음'과 '의를 숭상하고 이익[利]을 아래로 여김'을 의미한다. 이는 내면의 덕을 높이는 방안이다.

(a)~(e) 용례를 통하여, 덕은 군자가 보유한 내면적 역량으로, 소득이나 이익의 추구보다 (해야 할)일을 우선적으로 해내는 역량과 의미연관이 있다. 그리고 '덕을 소유한 이가 적고'와 "여색"

9) 육예는 군자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실천하여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29 [7]). 이기동은 "도에 뜻을 두며, 덕을 굳게 지키며, 인에 의지하며, 예에 노닐어야 한다"는 문장은 배움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 과정의 처음은 禮[예]를 배우는데서 시작한다고 본다. 그리고 예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단순히 예의 형식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실천에 그 목적을 두고, 덕에 근거하여, 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하였다(이기동 역주. 앞의 책: 222).

10) "君子懷德, 小人懷土".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76 [7].

11)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23 [7].

12)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76 [7].

13) "有德者必有言, 有言者不必有德.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276 [7].

14) "敢問崇德, 脩慝, 辨惑", "善哉問! 先事後得, 非崇德與".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247–248 [7].

및 "말(言)"의 비유를 통하여 의도적 실천을 통해서 내면의 덕이 높아짐을 가늠할 수 있다.

2) 인의 용례

(f)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인을 묻자,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愛]하는 것이다" 하였다."[15]

(g) "자장이 공자에게 인을 묻자, "능히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인이다". "공손함(恭), 너그러움(寬), 믿음(信), 민첩함(敏), 은혜로움(惠)이니,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뭇 사람들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충분히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하였다."[16]

(h) [재아가 (부모의)삼년상이 너무 길지 않으냐고 묻자], "공자께서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하니, 재아가 대답하기를 "편안 합니다"하였다. 공자는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 군자가 거상할 때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 말하였다. 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께서 "재아의 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3년 상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이니, 재아는 3년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있었는가?" 말하였다."[17]

(i) "사랑한다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한다면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18]: 사랑하면서도 수고롭게 할 줄 알면, 그 사랑함이 깊은 것이요, 충성하면서도 깨우쳐 줄 줄 안다면 그 충성이 큰 것이라는 의미이다.

(j)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사람이 인한 이가 적다."[19]

(f)~(h)의 용례는 인은 사람을 사랑함/공손함,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 은혜로움을 행함/받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실천적 역량과 의미연관이 있다. (i)와 (j)는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덕을 설명한 (a)~(e)보다는 인을 설명한 (f)~(j)에서 인륜의 내용과 표현방식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을 통하여 인륜과 예의를 매개하는 덕과 인 의미의 갈래는 다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첫째, 덕은 군자가 보유한 내면적 역량이다. 둘째, 덕은 내면적 역량이고, 인은 덕의 구체화로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이다. 셋째, 인의 내용에는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너그러움・믿음・민첩함・은혜로움을 포함한다. 넷째, 인은 인간관계에서 받음과 보답의 자율적 실천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다섯째, 인의 실천에서 외적 표현 방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논어』에서 인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술어로 설명되었지만, 항상 인간다움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6].

그러면 덕의 보유와 인이 실천되는 구조를 실

15) "樊遲問仁. 子曰, "愛人"".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248 [7].
16)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爲仁矣." "請問之." 曰,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344 [7].
17)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357 [7]. 여기서 3년 상은 알맞은 제도로 성립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18) "愛之, 能勿勞乎? 忠焉, 能勿誨乎".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277 [7].
19) "巧言令色, 鮮矣仁".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20 [7].

천주체 측면과 실천대상 측면에서 살펴보자.

2. 덕과 인의 실천적 구조

1) 인의 실천 주체 측면에서

앞의 (a)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처하는 곳을 생각하며"에서, 군자와 소인은 그 지향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논어』에서는 사람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별하여 지칭한다. 군자가 내면적 역량인 덕을 보유하고, 이를 인으로 표현해내는 역량까지 겸비한 도덕적 사람이라면, 소인은 인의 실천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사익에 더 관심을 두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덕을 높이는' 방안을 소득의 추구보다 (해야 할)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아 변화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수신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사람이 수신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군자와 소인의 구도에서 군자는 자연적・사회적 관계에 속한 자신을 깨달은 사람, 소인은 공동사회의 존재자로 자신을 투사시켜 나가는 계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12].[20] 『논어』에서 군자는 공자가 개념 정립에 심혈을 기울인 주제중의 하나로, 부단한 자기극복의 존재방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전형이다[17]. 우리는 군자를 수신을 통하여 자립적, 관계적, 이타적 특징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군자와 소인, 수신, 덕과 인 그리고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로서의 사람 개념이 관련되는 구조에서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이 항상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추측해볼 수 있다(용례 (c), (d) 참조). 즉, 구체적 생활의 장에서 사람은 군자를 지향하지만 소인에 머무를 수 있고, 소인을 자처하지만 군자가 보유하는 덕과 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 행위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인을 실천하여 덕을 보유하는 과정에는 도덕적 갈등이 있으며, 수신에는 의도적 결단이 따른다.

그러면, 소인을 배척하고 군자가 될 것을 권장하는 유학윤리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공동체주의를 권장하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체계인가? 본 논문은 '인륜에 뜻을 두며[지어도]'와 인륜-덕-인-예의를 관련시키는 유학의 사유체계를 공동 사회(Gemeinschaft)보다는 이익 사회(Gesellschaft)의 도래를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동시대인들에게 도덕왕국의 건설을 촉구하고자 한 기획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 체계는 사회의 안정구조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개선과 현실의 구원 등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 열망을 담은 기획이기도 하다[12]. 유학의 사유체계에서 도덕은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인간을 동물과 달리 고결하게 만드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수신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2) 인의 근본 형태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f) 참조). 인은 사람에게 공손함,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 은혜로움을 행함이며, 받음을 보답하는 실천적 역량과 의미연관이 있다. 이러한 의미연관에서 우리는

20) 유학의 인간관은 신정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서울 : 심산출판사, 2006 : 94–113 [12] 참조.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은 실천 주체의 사회적 역할이나 교제범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인은 개인과 공동사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주체가 대상과 일체화되는 깊이와 폭으로 드러날 것이다. 셋째, 사람을 자연적・사회적 관계 내 존재로 사유하는 관점에서 인은 우선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발현되고 실천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효(孝)가 인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논어』에서 효를 설명하는 용례 몇을 살펴보면,

> (k)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효와 제(弟)라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21]
>
> (l) 효가 무엇이냐고 묻는 여러 사람의 질문에 공자는 효를 "무위(無違)", "예(禮)", "경(敬)"이라고 설명하였다: "무위"는 도리에 위배되지 않음이다. "예"는 예의로, 예로써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인 것이다. 자기 분수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분수에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은 똑같이 불효이다. 그리고 "경"은 공경하는 것이다.[22]

효를 설명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는 인의 근본이자, 도[인륜]의 근본이다. 둘째, 효의 실천은 도리, 예의, 공경과 관련된다. 유학의 사유체계에서 사람은 혈연적 결속과 사회적 역할이란 맥락 안의 존재이지, 자연적・사회적 관계를 벗어난 사람은 사유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면, (k)를 통하여 인의 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부모이며, 인의 근본형태는 효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도(인륜)-덕-인-예(예의)에서 덕과 인의 실천적 구조에는 실천주체로서 군자와 소인 → 덕을 보유하고 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수신 → 실천대상으로서 인의 근본형태인 효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을 활성화시키는 동인은 수신이며, 인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인의 근본형태로서 효와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을 활성화하는 동인으로서 수신을 염두에 두면서, 현대사회의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를 고찰해보자.

Ⅳ.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

1. 현상의 이해

의료행위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여 처방하고 실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요청되는 의학적 의사결정은 환자의 이익을 최대로 고려하는 결정이다. 그러면 의학적 의사결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학계의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1) 우리나라 성인들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 및 자율적 판단과 결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결정에는 의사와 보호자의 의견을 함께 참조하고자 한다[18]. 2) 암 전문의들은 환자 가족은 환자의 치료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에게는 정보를,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의 참여가 오히려 치

21)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9 [7].
22)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37–38 [7].

료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환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경우도 있다는 상반된 입장에 선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가족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 할 방안 모색과 가족의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암 진료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19]. 3) 의료행위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원칙이 상충한 것으로, 의사-환자 관계의 특수성, 특히 질병으로 환자의 자율성이 감소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의학적 간섭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다[20]. 4) 한 연구는 환자가족의 관여가 환자의 자율성 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유를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질병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꺼린다. 그 이유는 환자가족들이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심정적으로 어렵고, 환자가 진실을 알면 치료의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의 과정에서 환자 및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다[21]. 5) 연명의료 중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우리 의료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연명의료와 관련한 법률과 지침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과 가족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방식을 우리 의료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의사와 보호자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22]. 이상의 논의들과, 일례로 입원환자의 심각한 질병상태를 환자본인보다는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또 수술의 경우 환자 가족의 확인을 득하는 관행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점[13]은, 우리나라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보호자인 가족은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의학적 의사결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율성 개념도 이론적 도전을 받고 있었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개념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연구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뿐 아니라 대상자가 해당 정보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의과정에 있어 대상자와의 긴밀한 대화가 이해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정보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관계적 자율성 이론은 개인 중심 자율성 이해에서 탈피하여 행위자의 감정적 요인, 주변상황과의 상호작용, 환자의 의존적인 성격을 논의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관계적 자율성이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와의 관계에서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는 의료윤리 원칙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24]. 필자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개념이 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의 이해를 확인하는 데까지 외연을 확장하여도 이 개념이 인간이 자연적 · 사회적 관계내의 존재임을 고려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본다.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맥락에서 환자에게 제한적인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한적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이해에 근거한 동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자율성 존중 원칙은 원칙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개념이 의료윤리원칙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을 지지하므로, 이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면, 자율성 존중 원칙도 원칙으로서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현상과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기 위해 살펴본 위의 논의들은,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의료윤리원칙에서 자율성 개념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개념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 지점은 자율성 존중 원칙에 재고해야 할 여지가 있고, 환자가족이 의학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침이 수립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가 유학의 관계적 인간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수신과 인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안한 의료윤리원칙의 주요개념이 유학윤리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유학윤리체계의 가치가 결정의 준거 내지 원칙이 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도출되지 않는다. 본 연구가 『논어』의 도-덕-인-예에서 덕과 인 의미의 갈래를 가늠하고 그 실천적 구조를 고찰한 것은,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전통문화인 유학이 지목되므로, 유가 문헌을 통하여 이를 이해해보려는 데 있었다. 앞에서 고찰한 바를 상기해보자. 유학윤리에서 인간은 항상 자연적・사회적 관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논어』의 도(인륜)-덕-인-예(예의)의 관련에서 덕과 인의 실천적 구조는 다음을 보여주었다. 첫째, 행위주체로서 군자와 소인이 있고, 군자는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서의 도덕적 행위자이다. 둘째,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동인으로서 수신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의 근본형태를 효에 두고 있었다. 즉, 가족관계에서의 인이 사회적 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넷째, 군자와 소인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이 행위주체의 의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에는 윤리적 갈등이 내재함을 추측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필자는 덕과 인은 다음의 두 가지를 함의한다고 본다. 하나는,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동인으로서 수신의 중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신과정에 내재하는 도덕적 갈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정비의 필요성이다.

먼저, 수신의 중요성 측면을 살펴보자. 의사의 경우, 환자는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주체이므로, 그의 관심, 선호, 선택을 존중해야하고, 동시에 그를 가족, 사회, 특정 사회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존재로 대우하려는[23] 수신과정은 의사-환자 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가족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한 가족성원 간의 수신과정은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25]. 이에 더하여 인이 가족관계 내 부모자녀 관계의 사랑을 근본으로 대상을 확장시켜가는 점진적인 사랑이라는 점은, 효라는 기본적인 사랑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처한 환자에게도 수신과정은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제도정비의 필요성은 행위주체가 덕을 보유하고 인을 실천하는 수신과정에 내재하는 도덕적 갈등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의 수립 및 운용을 제안한다. 행위주체가 경험하는 도덕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장치로서 사

23) Tsai DFC. The confusician personhood and informed consent. 철학사상 2004 ; 18 : 108–109 [13].

회제도는 보다 용이하게 인을 실천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과 관련될 수 있는 유학의 제 가치를 『논어』에 보이는 덕과 인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의학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관여하는 현상의 원인을 전통문화인 유학에서 찾는다면, 인간을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로 사유하는 유학의 인간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환자가족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순기능 또는 역기능을 하면서 관여하고 있고, 이 현상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환자가족은 환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를 도울 수 있고, 전문 의학지식이 있는 의사는 환자에게 심리적 지지 뿐 아니라 실제 치료방법의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논어』의 도(인륜)-덕-인-예(예의)에서 덕과 인의 실천적 구조는 수신의 중요성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함의하였다. 수신은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이며 이타적인 인간[군자]으로 완성되는 데 중요한 개인적 덕목이고, 제도정비는 개인의 수신을 지원하는 사회적 덕목이다. 이러하다면,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환자가족이 끼치는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추구 측면에서 선행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사유하는 유학의 인간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도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보아 몇 가지를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말기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환자가족이 관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이는 유학의 관계적인 인간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 현상을 선행 원칙에 비추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을 밝힌 제1조는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로서의 인간개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연적·사회적 관계내 존재로서의 인간개념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말기환자의 간병이 환자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가족이 자발적으로 환자의 간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덕의 보유와 인의 실천과정에서 행위주체가 겪을 수 있는 도덕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의의가 있다.

셋째,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고 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작성시점이 의료행위라는 맥락을 벗어나 있으므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관

련이 없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확인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로 일원화하고, 의사가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시점을 그 작성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사라 알란. 오만종 역.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 예문서원, 2001.
2) 이동철, 최진석, 신정근 엮음. 21세기의 동양철학. 서울 : 을유문화사, 2005.
3) 이은영. 삶의 마감 시기 의사결정의 윤리적 이슈–의사결정모델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2 ; 15(2) : 160–183.
4) 이상목, 김성연, 이형식. 암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12(1) : 1–14.
5) 이상목.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 의학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7 ; 10(1) : 23–32.
6) 김진경.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천적 덕의 토대로써 중용(中庸). 철학논총 2011 ; 63(1) : 229–247.
7)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8) 이기동 역주. 논어강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9) Legge J (Trans.). The Chinese Classics – Volume1: Confucian Analects. Project Gutenberg. Available from: http://www.gutenberg.org/ebooks/3330 [cited 2017 Feb 10]
10)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1) Tsai DFC. The bioethical principles and Confucius' moral philosophy. J Med Ethics. 2005 ; 31 : 159–163.
12) 신정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서울 : 심산출판사, 2006.
13) Tsai DFC. The confucian personhood and informed consent. 철학사상 2004 ; 18 : 77–110.
14) 손보미.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5 ; 5(1) : 125–153.
15) Zhang D (ed & trans. by Ryden E). The Culture & Civilization of China.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 11–12.
16) 이철승. 현대사회에서 仁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유교사상문화연구 2015 ; 61 : 225–247.
17) 임헌규. 공자의 군자론과 철학의 이념.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 20 : 143–166.
18) 권복규. 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조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5 ; 18(3) : 251–261.
19) 암환자 치료결정에 가족 참여 도움. 이데일리 기사검색; 2017. 1. 17. Available fro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915526615798704&DCD=A00706&OutLnkChk=Y [cited 2017 Feb 2]
20) 김상득. 의료행위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물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6 ; 19(4) : 447–469.
21) 장원경, 안경진, 김민영 등. 연명의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환자가족의 역할: 말기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5 ; 18(2) : 172–189.
22) 권복규, 고윤석, 윤영호 등.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0 ; 13(1) : 1–16.
23) 정은주. 인폼드컨센트(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로의 확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6 ; 19(2) : 157–174.
24) 이은영.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의 새로운 이해: 관계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4 ; 17(1) : 1–13.
25) Yi SG. Senior welfare in Korean Confucian Society. J Confucian Philos Culture 2016 ; 25 : 55–73.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 78–90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년 3월
Korean J Med Ethics 20(1) : 78-90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March 2017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The Implications of *de* and *jen*: Medical Decision-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alects**

SON Bo Mee**

Abstract

In Korea, it is common for a patient's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intervene in the patient's medical decision-making. While some see this as a violation of patient autonomy, it can be useful in some cases for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help the patient make decisions. In order to create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concerning medical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context, a Confucian ethical perspective must be consider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s of *jen* (humaneness) and *de* (virtue) that are found in *The Analects* and shows how those concepts affect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decision-making. It is also shown that, in the context of Confucian ethics, a person (人) is an autonomous but also relational being

Keywords

medical decision-making, autonomous and relational being, Confucian ethics, *de*, *jen*, moral self-cultiv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2044).*
** *Department of Bioeth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